

아기 울음소리 ↓ 곡소리 ↑...전남 지역소멸 위기 심각

통계청 2022년 11월 인구동향

조사망률 전국 최고·조출생 최저
전국 월 출생 2만명 미만 5번째
인구자연감소 37개월째 이어져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인구가 3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사망률과 최하위권 조출생률을 나타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565명으로 1~11월 누계는 전년 대비 6.4%(-5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5명 감소한 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같은달 사망자는 1,688명으로 누계(1만 5,950명) 보다 19.0%(3,023명) 증가한 1만 8,97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1년 전보다 1.0명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다음으로는 경북(10.8명), 전북(10.5명), 강원(9.9명), 충남(9.5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이 -1,123명을 기록하면서 자연증가율은 -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 2021년 1~11월까지 누계 자연감소분은 -8,062명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1만

1,588명으로 3,526명 더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56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명 감소했다.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세종(7.9명), 경기(5.2명), 대전(5.1명), 제주(5.0명)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766명으로 전년 동월비 57명 늘었다. 한편, 작년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3%(847명) 감소했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며 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줄었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1년 전보다 6.1%(1,741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인구 자연 감소분은 1만1,125명이며,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7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홍승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함께해요” 농협강진군지부는 최근 강진전통시장, 군내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김승남 국회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강진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농협강진군지부 제공

광주TP, '찾아가는 G.F.D 현장지원단' 간담회

지역 산업·경제·기업 애로 청취

(재)광주테크노파크는 27일 제2회 '찾아가는 G.F.D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26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TP는 산업·경제·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G.F.D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제1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G.F.D 현장지원단은 광주TP와 광주시, 기업지원, 금융·자금, 취업·고용, 수출·무역,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지원단 간담회는 월 1회 실시하며, 권역별로 다수의 기업과 현장지원단이 모여 다

양한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산업·경제·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제1회 간담회에는 광주시 Pre 및 명품광소기업 8개사와 현장지원단이 경영, 금융, R&D, 고용, 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원 및 모니터링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기업과 공생, 지역과 공존, 테크노파크와 공감하는 현장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다양한 기술정보 공유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중기청,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규과제 717개 1,119억 규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중소기업-해외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R&D다. 올해 71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해 1,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까지다.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수요처 대상 사전 기술 수요(RFP) 발굴을 통해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신규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30개 과제는 도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매와 관련 계약 의무와 현금 지급 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과제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1월 구매조건부 상반기 공고를 통해 314개를 선정·지원하고, 4월에는 하반기 공고를 통해 구매조건부 373개, 네트

워크형 30개를 지원한다. 상반기 구매조건부 신청·접수는 기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내역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반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2023년에는 협력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지난 25일 오전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박성수 이사장 퇴임식을 가졌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제공

“광주 경제진흥 중추기관 역할 위해 노력”

박성수 경진원 이사장 퇴임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이하 경진원) 박성수 이사장이 퇴임했다. 경진원은 지난 2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 이사장 퇴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박 이사장의 '경진인에게 드리는 십계명' 강의에 이어 꽃다발 전달과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박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책자를 선물하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기관 내부로는 월례세미나, 단체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썼으며, 명사특강을 통해 인문학 강의 및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전파를 통해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

했다. 외부로는 ESG위원회, 입주기관사 파트너스데이 개최, 최상준홀 개원, 빛고을경제진흥계간지 발간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힘쓰며 경진원의 중장기 경영 진단을 통해 향후 기관의 목적에 맞는 나아갈 방향과 비전 등을 새로이 제정했다. 박 이사장은 경진원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남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광주경진원에서의 292일간의 여정이 끝났다. 앞으로도 경진원이 광주 경제진흥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오지현 기자

삼성전자, 2023년형 에어컨솔루션 신제품 공개

무풍에어컨·큐브 에어 공청기 친환경 기능 에너지 특화 모델

삼성전자가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과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신제품 라인업을 26일 공개했다. <사진> 2016년 첫 출시돼 7년간 혁신을 거듭해온 무풍에어컨은 올해 최상위 라인업인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클래식' 외 '무풍 슬림' 에어컨까지 스탠드 에어컨 전 라인업을 무풍 기능으로 운영하며, 에너지 특화 모델과 친환경·스마트싱스 기능 등 사용편의성을 강화했다.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한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클래리는 열교환기 전열면적을 2배 늘리고 더 커진 실외기 팬과 고효율 모터를 적용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냉방효율이 10% 더 높은 에너지 특화 모델이다. 스마트싱스 홈케어 서비스를 활용해 제품 기기 상태 진단 및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경험할 수 있는 홈

케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세척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극세 필터와 전기 집진 필터도 탑재했다. 2023년형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맞춤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새롭게 도입된 '맞춤케어 필터'는 소비자가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필터를 변경할 수 있다. 일반 공기청정기 모델을 구매했다라도

추후 필요에 따라 펫·탈취 강화 필터로 교체해 업그레이드해 사용 가능하다. 탈취 강화 모델은 기존 대비 더 촘촘한 활성탄으로 약 2배 빠르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 신제품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통해 내달 12일까지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현 기자

농협 호남친환경물류센터, 경기도 급식업체 선정

최대 3년간 전남농산물 공급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최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외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 선정 공모에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센터는 오는 3월부터 최초 2년 계약 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형식으로 2026년 2월까지 최장 3개월간 경기도 학교급

식을 공급한다. 센터는 2022년에도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멜론, 블루베리, 무화과, 단감, 깻마늘, 피망 등 46억여 원의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연간 172억원의 판매고를 올려 친환경 농가의 소득에 기여했다. 양산대 센터장은 “철저한 산지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전국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